

월간운용보고서

2022년 11월 30일 기준



교보학사 삼성전자 투게더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 목적 및 주요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통안채, 특수채 등의 채권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시장 선두주자 기업인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주식에 “Buy & Hold” 전략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알파수익을 추구합니다. 삼성전자 투자비중은 유가증권 시장 내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까지이며,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편입자산의 디폴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펀드 운용현황

(단위 : %)



클래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연초후	설정후
A	1.90	1.25	-1.90	-	-	-4.57
C-I	1.90	1.27	-1.87	-	-6.01	-6.51
C-Re	1.93	1.34	-1.71	-	-	-5.39
Ce	1.89	1.22	-1.95	-	-6.15	-6.65

※상기 운용성과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운용펀드 기준이므로, 가입하신 Class의 보수 등의 차이로 상기 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하나펀드서비스

포트폴리오 현황

자산별	비중(%)
주식	22.36
채권	77.34
수익증권	-
기타 유동성	0.29

주식 종목별	비중(%)
삼성전자	20.98
디이엔티	0.93
현대오트ୋ에버	0.45

채권 종목별	비중(%)
국고01875-2412(21-10)	77.34

※포트폴리오 현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작성일 기준 5영업일 이전 자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출처:운용펀드 기준, 하나펀드서비스

펀드 개요

설정일	2021년 12월 24일	설정액	22 억원	위험등급	4등급
운용역	이병수, 허승엽	투자대상	채권 70% 이상, 주식 30% 미만	벤치마크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선취수수료	Class A: 납입금액의 0.7% 이내, Class Ae: 납입금액의 0.35% 이내		
매입방법	17시 이전(경과 후) 제 2(3)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17시 이전(경과 후) 제3(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5)영업일 지급				

주요 클래스 총보수 (가입 자격)	Class A (제한없음)	0.387%	Class Ae (온라인)	0.337%	Class C (제한없음)	0.837%	Class Ce (온라인)	0.562%
	Class C-Re (퇴직연금 온라인)	0.447%	Class C-I (기관)	0.317%				

펀드 운용현황 및 운용계획

시장현황 및 운용경과

11월 코스피는 10월 미국 물가지표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중국 제로코로나 규제 완화 발표 등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78% 상승하였습니다.

11월 삼성전자 주가는 4분기 최악의 업황이라는 인식 하에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의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반영되며 +4.7%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강화된 결과 국내 채권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1,300원대 초반으로 하향 안정되고 한은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국내 채권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한 결과 국고채 3년은 3.705%(-47.0bp ($1\text{bp}=0.01\%$) MoM(전월 대비)) 국고채 10년은 3.68%(-54.7bp MoM)로 마감하였습니다. 펀드에서는 제한적인 듀레이션(평균 자금회수 기간/상환기간) 하에 높아진 이자수익률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2월 코스피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주식시장의 하단이 견고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9월 말 저점 대비 15% 이상 올랐고, 단기 과열권 진입으로 10~11월 상승 이후 추가 상승 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주가수익비율)도 11배로 회복하면서 숨 고르기 장세에 접어든 뒤 내년 상반기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 멈추고 상승 전환이 기대될 때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12월 삼성전자 주가는 10~11월 상승 이후 숨 고르는 모습을 보이며 제한된 박스권 모습을 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말까지 55,000~65,000원 박스권 흐름 이후 최악의 업황인 4분기를 지나면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 1분기 미국이 금리인상을 멈춰 경기선행지표가 턴어라운드하는 시기에 고객사들의 주문도 재개되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회복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DRAM 가격은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하고, 삼성전자 실적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반영해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이자용 회장 취임 이후 주주환원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분기 실적발표회(2023년1월)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가 검토되고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월 채권시장은 국고채 3년물 기준 3.550~3.850%, 10년물 기준 3.500~3.800%, 국고 3/10년 스프레드(가산금리)는 -10~5bp 수준의 흐름을 전망합니다.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연말까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중앙은행 및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는 당분간 포트폴리오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며 이자수익을 높게 유지해 나가는 한편 채권 포트폴리오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자산의 교체 매매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자료는 수익증권 가입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동 펀드 판매회사의 직원들에게 동 펀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 보유내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리서치나 투자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특정 회사나 종목의 언급이 매수, 매도, 보유 혹은 직접투자의 추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경제 및 시장전망은 자료 작성일 현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당사 고유의 모델을 기초로 하였으며 이러한 전망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관점과 견해는 오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에 의한 개별주식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 추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관점이나 의견은 본 자료 작성일 현재 시점의 의견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본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투자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 배포될 수 없으며, 지정된 수취인 이외 배포하거나 공유는 금지됩니다. ※ 투자자 또는 고객에게 투자권유 및 홍보를 위하여 본 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당사는 동 자료를 이용한 투자권유 및 홍보에 따른 어떠한 법률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상품의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가)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